

제목 :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 정책의 방향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1993년 ~ 2002년) 창출된 일자리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요 분석 결과

- 일자리 양극화의 진전
- 중위 직업에서의 정규직 일자리의 소멸
- 하위 직업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
- 대기업에서의 중하위 일자리의 소멸

I. 주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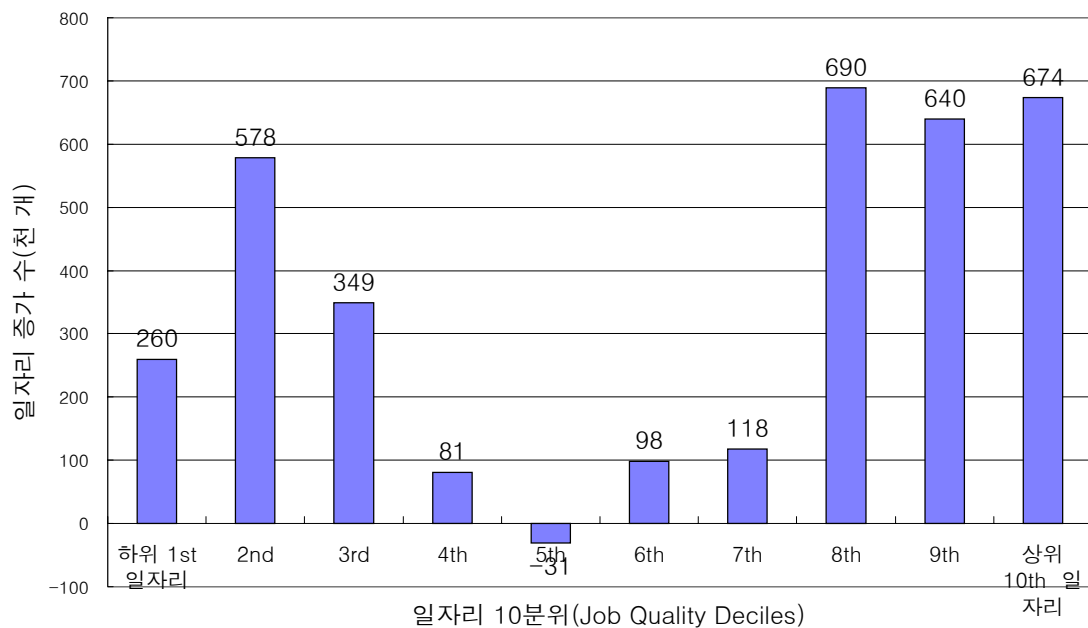
□ 일자리 양극화의 진전

- [그림 1]에서 1993년~2002년간을 볼 때, 일자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 직업인 40~70%의 직업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하위 30% => 일자리 118만7천개
- 중위 40% => 일자리 26만6천개
- 상위 30% => 일자리 144만8천개

[그림 1] 일자리10분위별 증감(전체 취업자 기준, 1993년~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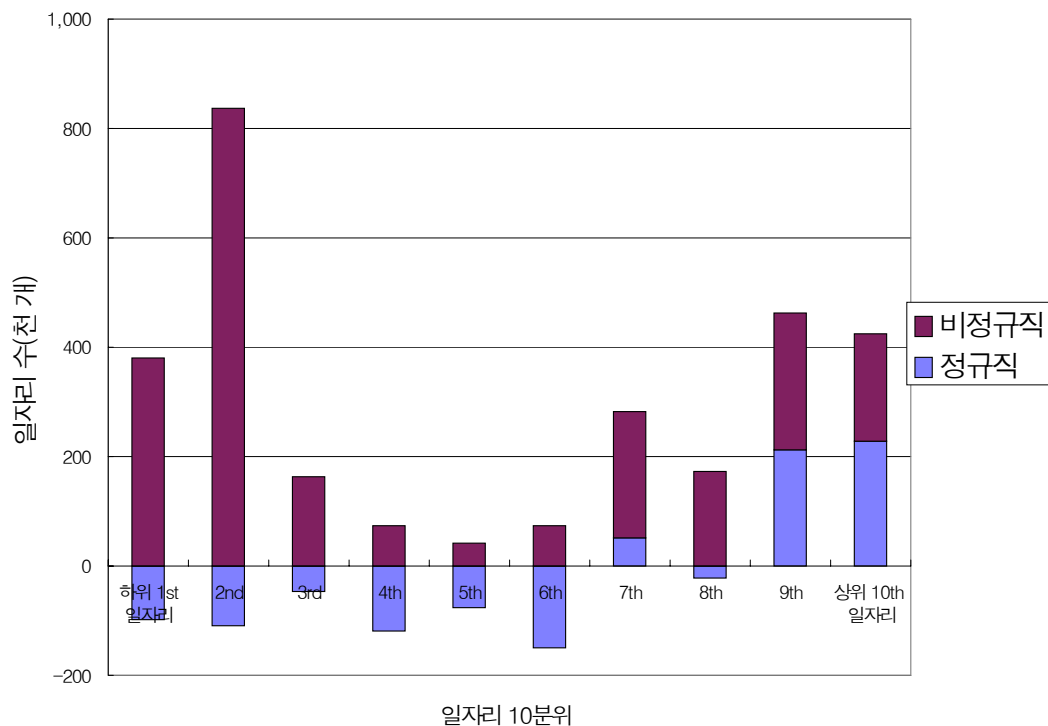


※ 주: 직업 10분위 구분은 직종-산업 셀(occupation-sector cells)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이 셀의 평균보수수준(중간값)을 기초로 하여 구분하였음. 즉, 하위 직업은 보수 수준이 낮은 일자리이고, 상위 직업은 보수 수준이 높은 일자리임.

□ 중위임금근로일자리에서의 정규직일자리의 소멸과 저위임금근로일자리에서의 비정규직화 진전

- [그림 2]에서 볼 때, 임금근로일자리의 경우, 저위임금근로일자리의 증가는 비정규직화 경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 2]에서는 4, 5, 6 분위의 중위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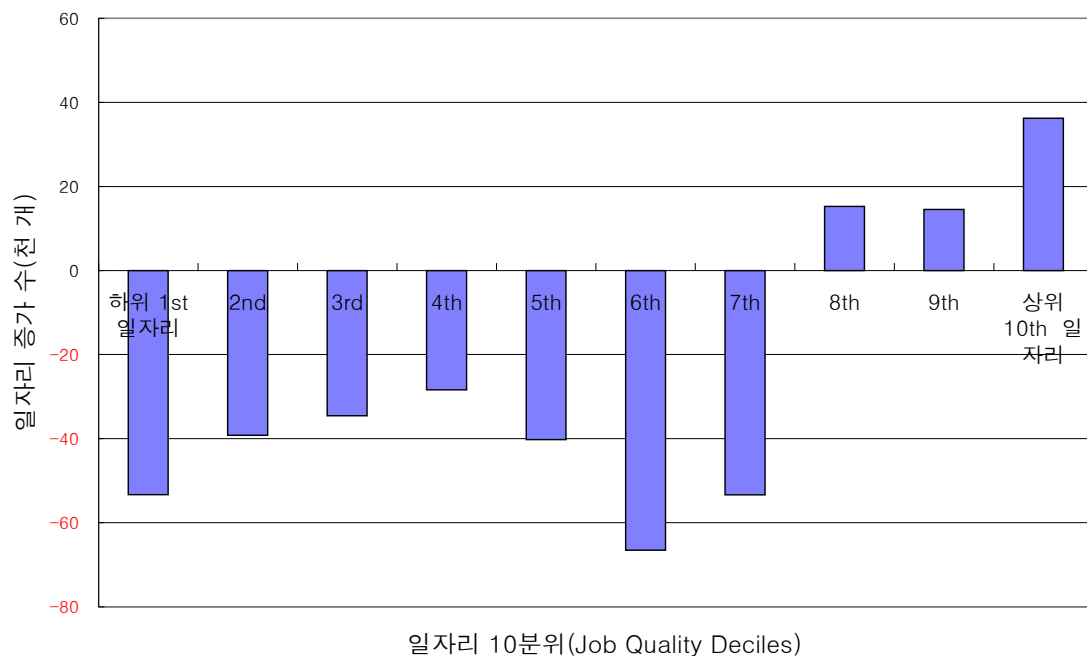
[그림 2] 일자리10분위별 일자리 수 증감
(임금근로자 기준, 1993년~2002년)



□ 대기업에서의 중하위 일자리 소멸 진전

-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는,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만 남기고 나머지 일자리는 털어버리는(shedding)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그림 4]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수 증감
(임금근로자 기준, 1993년~2002년)



주: 대기업은 기업체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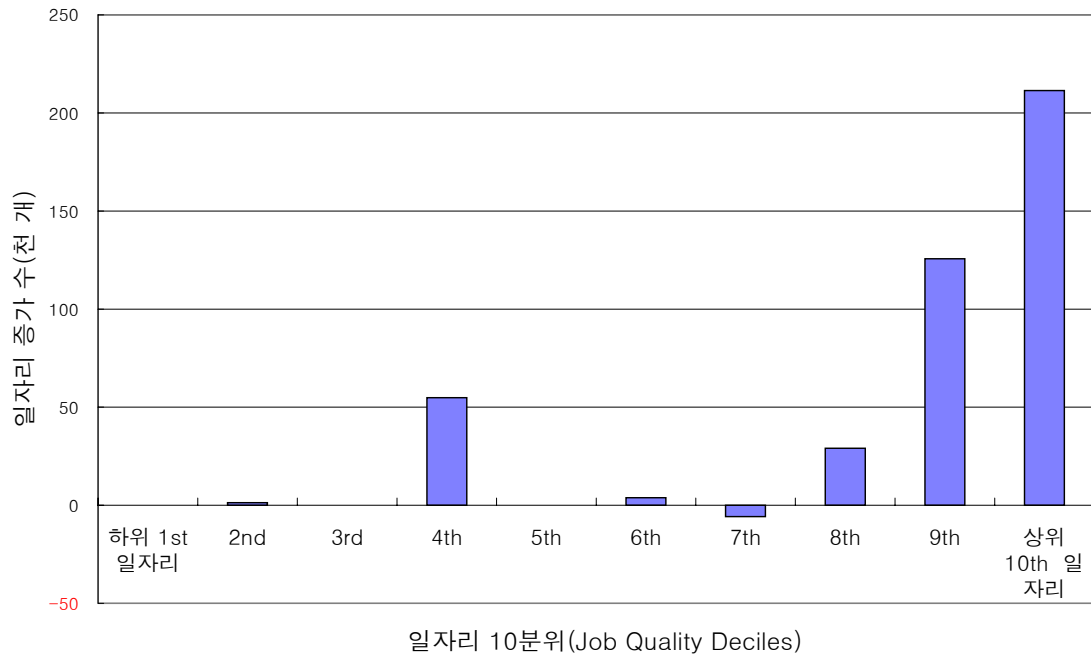
□ 산업별 일자리 변동의 특징

- 제조업도 대기업에서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소수의 양질 일자리 이외의 전반적인 일자리 소멸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5])
- IT산업이 일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IT산업의 경우 주로 고위 일자리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 ([그림 6]).
 - 다만, IT제조업의 경우 중위수준의 일자리창출에 일정 부문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부표 그림 2])
-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중위 또는 중상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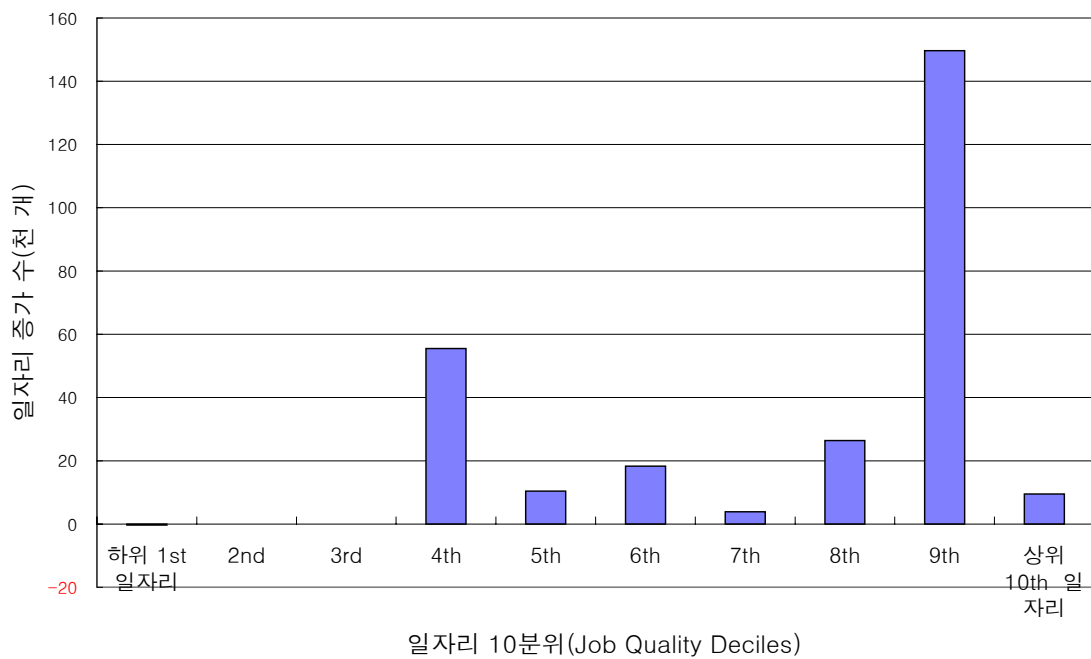
[그림 5] 제조업 일자리 수 증감



[그림 6] IT산업 일자리 수 증감



[그림 7]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수 증감



□ 주요 부문의 일자리 변화의 추이

-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중산층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대기업, 금융업, 공기업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이러한 재화생산부문 및 주요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소멸은 서비스업, 전문직 업종,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로 대체되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크게 전문서비스업, 사회적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임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간주될 수 있는 IT서비스업이나, 공공부문, 보건의료복지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전문직이나 준전문직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임
- 그럼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개인·가정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부문의 판매,서비스, 생산, 단순노무직 등의 일자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표 1> 및 <부표 1>과 <부표 2> 참조

<표 1> 주요 부문 일자리 추이 (단위, 천 명)

	1993년	1997년	2002년
300인이상대기업	1,807	1,809	1,624
금융업	669	788	726
공기업부문*		266	215
30대 대기업집단*		939	703
건설상용직	390	451	364
건설일용직	845	940	795
건설임시직	187	303	241
IT서비스업	172	259	520
공공부문	637	665	693
교육	961	1,138	1,334
보건의료복지	286	338	561
서비스 부문의 전문직	2,029	2,621	3,104
도소매음식숙박 및 가사개인서비스	4,127	4,607	5,049
서비스부문의 판매 · 서비스 · 생산 · 단순직	6,435	7,678	8,7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노동부, 고용보험DB

II 정책적 함의와 정책방향

□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 빈곤의 문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취약계층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노동빈곤(working poor)의 문제이기도 함
 - 즉, 실업이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탈락·배제가 빈곤 현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빈곤층의 상당 부분이 저위일자리에 퇴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도 있음.
- 일자리의 양극화는 단순히 저소득 빈곤계층을 양산한다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기회를 제약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치며,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중간 수준의 일자리 증가율의 현저한 둔화는 하위의 일자리를 가진 자들이 더 높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함의를 가짐
 - 일자리의 상향이동은 대부분 현재 일자리보다 약간 수준이 더 높은 일자리들임.
 - 앞의 [그림 1]은 1, 2, 3 분위 일자리에서 4, 5, 6, 7 분위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중간 일자리 점유자로부터의 저위의 일자리로의 하향이동한 계층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 정책적으로는 빈곤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님.

□ 정책 방향

- “**중간적 일자리의 소멸과 노동빈곤층의 확대**” 경향에 대한 정책적 대처 방향 정립과 정책 수단 발굴이 필요
-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방향 => 일자리 양극화의 글로벌 시장경제의 당연한 결과로 인정하고, 하위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노동빈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 두번째 방향 => 정부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소득일 자리를 줄이는 정책 방향
 - 일자리 및 고용 구조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의 결과가 아니라, 세제, 교육·숙련형성 제도,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인정할 경우, 정부는 중간수준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력과 일자리의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일자리계층에 대한 각종 소득 보조 정책은 전자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소득세 감면, 사회복지분담금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EITC)
 - 물론 기초소득의 보장은 저위일자에 대한 노동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러한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노동시장의 작동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노동빈민에게 소득보장을 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음

□ 빈곤정책의 보완 필요

- 최저임금제도 보완

- 노동빈민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면(아직은 증거가 사실 불충분함)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국에서도 living wage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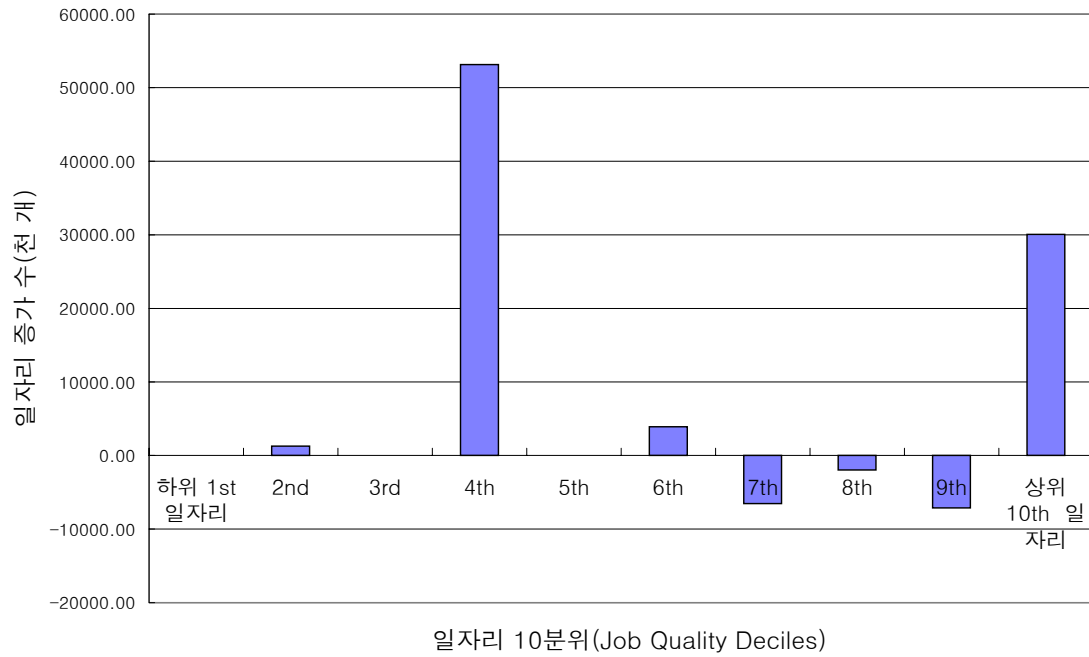
- 사회적 일자리의 잠재력 개발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서비스 관련 직종의 저위일 자리를 대체할만한 사회적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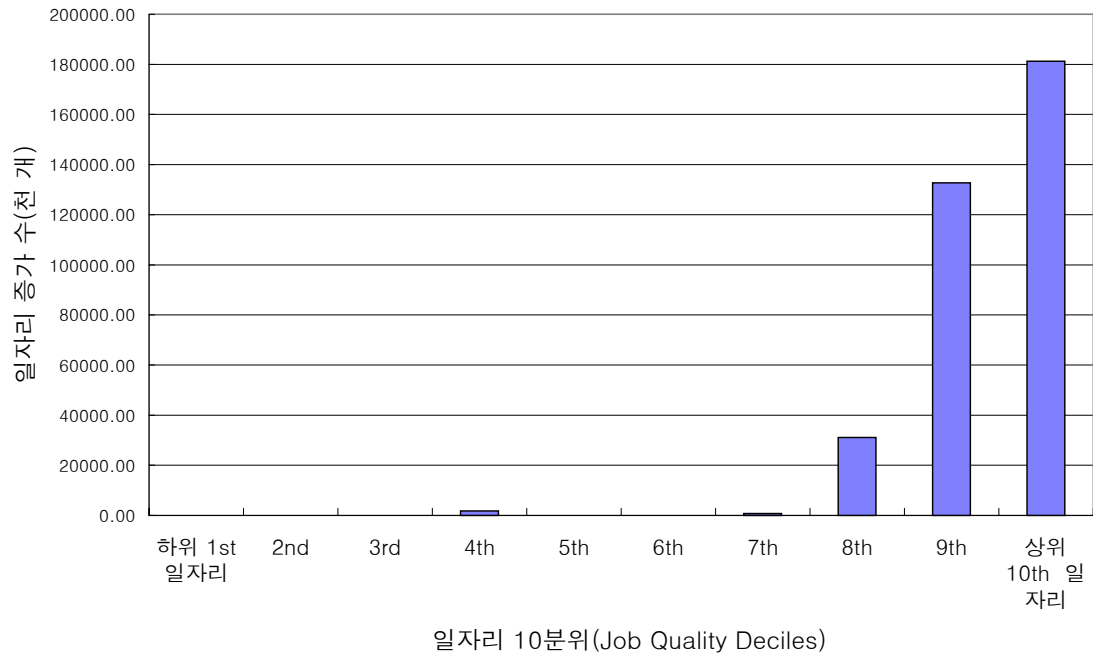
- 중위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파 적극적 정책 필요

- 노동빈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의 유동성(일자리 상향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개발
- 대기업의 교육훈련시스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 필요

[부록 그림 1] IT제조업 일자리 수 증감



[부록 그림 2] IT서비스업 일자리 수 증감



<부표 1> 일자리 분위별 대표적인(상위 5개 업종) 일자리 증가 및 감소 업종

		산업명	일자리 증감 (천명)	일자리 증감률 (%)	1993년 취업자수	2002년 취업자수
하위 30%	증가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669	52.9	1,266	1,935
		소매·소비용품 수선업	342	19.3	1,775	2,118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191	165.3	115	306
		기타 서비스업	97	32.5	299	396
		가사서비스	84	138.9	61	145
	감소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142	-40.8	348	206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84	-17.6	476	392
		가죽가방·신발제조업	-74	-43.2	172	98
		건설업	-38	-79.1	48	10
		가구·기타 제조업	-7	-13.5	53	46
중위 40%	증가 업종	도매·상품중개업	209	26.8	778	987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162	158.2	102	265
		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	107	52.2	205	312
		교육서비스업	89	22.6	393	482
		보건·사회복지사업	88	59.6	148	236
	감소 업종	자동차판매·수리·차량연료소매업	-132	-74.5	177	45
		가구·기타 제조업	-121	-39.1	309	188
		소매·소비용품 수선업	-76	-15.6	486	411
		목재·나무제품제조업	-52	-56.8	92	40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6	-15.7	292	246
상위 30%	증가 업종	교육서비스업	238	43.0	554	792
		정보처리·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234	595.6	39	273
		소매·소비용품 수선업	233	160.4	145	37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189	31.6	599	789
		보건·사회복지사업	186	135.1	137	323
	감소 업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1	-40.1	102	61
		의복·모피제품 제조업	-18	-50.4	36	18
		음식료품 제조업	-14	-15.2	95	81
		가죽,가방,마구류·신발제조업	-13	-49.4	26	13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	-12	-7.5	161	149

<부표 2> 일자리 증감 상위 및 하위 10개 일자리 셀
(Job Cells-직업-산업셀) (전체취업자 기준)

	산업명	직업명	10분위	일자리 증감 (천명)	일자리 증감률 (%)	1993년 근로자 수	1997년 근로자 수	2002년 근로자 수
증가 상위 10개	숙박 및 음식점업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2	589	49.3	1,196	1,717	1,786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3	327	18.7	1,754	1,671	2,081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209	359.0	58	64	267
	보험 및 연금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9	199		0	0	199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1	184	258.2	71	150	255
	육상운송파이프라인운송업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	8	183	32.5	562	618	745
	도매 및 상품증개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6	150	37.5	399	472	549
	교육서비스업	교육전문가	10	143	32.4	440	451	58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9	126	175.2	72	84	198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10	126	760.1	17	38	143
감소 상위 10개	금융업	고객봉사사무직원	9	-64	-94.7	188	165	124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	-65	-88.0	74	13	9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1	-65	-45.7	143	133	7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4	-72	-58.4	124	94	52
	섬유제품 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	-76	-45.4	168	102	92
	건설업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직	5	-98	-25.5	383	364	285
	자동차판매수리차량연료 소매업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5	-109	-93.8	116	142	7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4	-157	-52.2	301	329	144
	보험 및 연금업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	-173	-99.4	174	214	1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	-208	-94.7	220	10	12

<부표 3> 일자리 증감 상위 및 하위 10개 일자리 셀
(Job Cells-직업-산업셀)(임금근로자 기준)

	산업명	직업명	10분위	일자리 증감 (천명)	일자리 증감률 (%)	1993년 근로자 수	1997년 근로자 수	2002년 근로자 수
증가 상위 10개	숙박 및 음식점업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2	425	83.9	506	783	931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2	366	97.8	374	435	739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1	183	257.2	71	149	255
	보험 및 연금업	모델, 판매원 및 선전원	9	174		0	0	174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7	122	315.7	39	41	161
	교육서비스업	교육전문가	10	109	25.5	427	419	536
	정보처리컴퓨터 운용 관련업	물리, 수학 및 공학전문가	10	108	767.6	14	27	12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	9	105	204.9	51	56	156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1	87	56.2	155	270	241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일반 사무직원	4	81	104.6	78	109	159
감소 상위 10개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	-50	-85.1	59	10	9
	섬유제품 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	-61	-43.5	141	87	8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3	-63	-61.0	104	73	41
	도매 및 상품중개업	고객봉사 사무직원	4	-64	-85.5	75	89	11
	금융업	고객봉사 사무직원	8	-64	-35.4	181	157	117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1	-67	-60.4	112	92	44
	자동차판매수리차량연료소 매업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근로자	4	-73	-93.3	78	86	5
	건설업	채광, 건설, 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직	5	-102	-26.8	380	362	27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	-164	-94.0	174	10	10
	보험 및 연금업	행상 및 단순서비스직 근로자	9	-170	-99.4	171	211	1